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미국 크뢰머 박사

## “광산업 전망 밝아... 지속적인 육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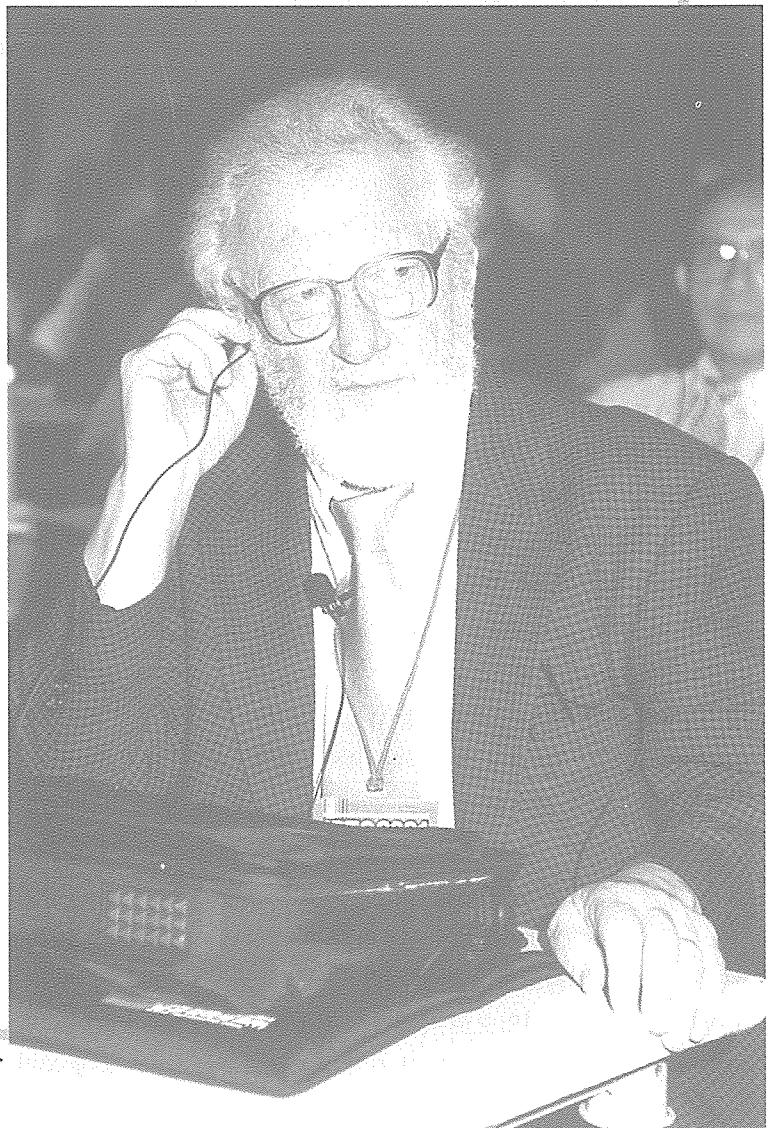
**지난** 2001국제광산업전시회 컨퍼런스 초청 강연차 한국에 온 지난해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허버트 크뢰머 박사(미국 캘리포니아대학)는 “광산업은 환경친화적 산업이자 고부가가치의 선진국형 산업으로 매우 전망이 밝다”고 강조했다.

크뢰머 박사는 컨퍼런스 기조연설주제인 ‘만물의 이중구조’라는 특강을 통해 21세기 정보화의 핵으로 각광받고 있는 오늘날의 광산업을 태동시킨 기본원리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특히 “운용세계가 무궁무진한 광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뒤 “한국도 광산업을 적극 발전·육성 시켜나가는 점은 높이 살만하며 머지않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크뢰머 박사는 이어 “지난 60년대 전자·광자의 특성을 운용할 수 있는 기본원리를 연구할 때 주위에서 미쳤다고 했는데 기본원리가 밝혀졌으며, 이 기본원리의 운용세계가 실생활화에 미친 영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해 졌다”고 말했다.

크뢰머 박사는 “광통신·광정보기기·광소재·광원 등 광기술 분야 전시실을 둘러보니 전시기술들이 골고루 갖춰졌다”며 “첫 국제규모전시회를 잘 준비한 흔적이 뚜렷하다”고 덧붙였다.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미국 크뢰머 박사 ▶